궁핍한 시대에 꽃핀 '낭만적 서정'의 세계

《목릉 문단과 석주 권필》 펴낸 정 민 교수

조선시대 선조연간은 한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 시대였다. 뛰어난 시인과 문장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찬란한 문학의 시대를 열었다. 특히 석주 권필은 당대에 시와 소설에서 뛰어난 작가로 손꼽힌다. 석주와 그의 시대를 총체적으로 연구한 《목릉 문단과 석주 권필》에서 정민 교수는 석주가 당대 문단의 정점에 오른 것은 그의 탁월한 언어미학 때문이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자로서 한 시기를 정리한 정 민교수는 이제 선현들의 글쓰기 이론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태학사/A5신/776면/28,000원

석주 권필(石洲 權韠, 1569~1612)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그의 시대가 한 소장 국문학자의 열정으로 400여년 만에 되살아났다.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40)가 펴낸 《목릉 문단과 석주 권필》(태학사)이 그것으로, 조선조 선조·광해연간의 한문학을 석주 권필의 생애와 문학으로 조감했다.

석주의 문학과 선조시대 문학에 대한 그간의 국내 연구는 소략한 편이었다. 대체로 단편적인 언급이나 미시적 고찰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북한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았다. 1961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간행한 《림제·권필 작품선집》에서 석주의 문학은 임제의 문학과 함께 "16, 17세기에 뚜렷한 기념비적 존재로서 우리의 문학사를 찬연히 꾸며 놓았다"고 평가받았다.

위기의 시대에 핀 찬란한 문학

석주는 허균으로부터 "절대가인이 분바르지 않고서 구름도 가던 길을 멈출 듯 아름다운 목소리로 등불 아래서 우조, 계면조를 부르다가 곡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조선시대 선조연간은 우리 한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뛰어난 시인과 문장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찬란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했지요. 이 시기를 한문학사에서는 '목릉성세(穆陵盛世)'라고 일컫습니다. 목릉은 선조의 능호에서 따왔습니다. 목릉문단의 작가 가운데 석주 권필은 발군의 기량으로 당대와 후대 문인들의 한결같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선조와 광해연간은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격동의 시기였다. 당쟁의 심화와 왜적의 침입으로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관과 형식의 수립이 요청됐다. 목릉문단과 석주는 이런 위기 상황의 산물이었다. 한문학사에서 이 시대는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분수령이었다.

"시대가 어려우면 시인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석주의 삶과 문학에 딱 들어맞는 얘깁니다. 그는 비록 44세의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평생 꿋꿋한 선비정신과 방외인(方外人)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언어예술에서 이룬 탁월한 미학이야말로 그가 당대 문단의 정점에 오를 수 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백 시의 경지에 근접한 시인

석주의 생애는 좌절과 실의의 연속이었다. 열아홉살 때 과거에 장원급제했지만 글자 한자를 잘못 써 취소당한 이후 관직의 길을 포기하고 시에 전념하며 세상을 떠돌았다. 말년에는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풍자한 시를 쓴 죄목으로 귀양가던 중 장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죽기 사흘 전에 지은 마지막 작품 〈절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평생에 우스개 글 즐겨 지어서/사람들 입 떠들썩 오르내렸지/붓 놓고 애오라지 세상 마치리/공자님도 말 없고자 하셨거늘."

"석주는 한시에서 이백 시의 경지에 근접한 시인이었습니다. 당대와 후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그의 시는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 균제를 잃지 않았지요. 성격은 대쪽처럼 강직했지만 시는 그렇게 서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그의 시를 읽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애틋한 정감이 느껴집니다."

석주는 '잡체시'란 형식으로 과감한 언어실험에도 앞장섰다. 〈옥련환〉이 그 흥미로운 사례다. 이 시는 글자가 앞뒤로 이어져 고리를 만드는 형식이다. 각 구의 맨 끝자를 파자(破字)해 그 반을 다음 구의 첫글자로 사용한다. 1구 끝의 황(黃)에서 2구 첫자 팔(八)을 따오는 식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글자 상(裳)에서 첫구 첫글자 의(衣)를 따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탁월한 언어감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정교수는 석주의 시세계를 '부드러운 날카로움, 유연한 치열함'의 이중구조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정교수에 따르면, 석주는 송시(宋詩)의 인위적 언어조탁을 거부하고 당시(唐詩)의 활달하고 발랄한 시풍을 중시했으며,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시라고 인식했다. 또한 현실의 모순이나 불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완곡하게 말했다고 분석한다.

17세기 소설의 패러다임 변화시켜

석주의 문학은 한시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사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한문 전기(傳奇)소설 〈주생전〉〈위경천전〉 등의 작품으로 17세기 소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후의 소설에서 변주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비현실적 이야기에서 탈피해 현실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은 《금오신화》와 후기소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석주의 소설은 고전 소설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그전까지의 소설에서는 사후의 초월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작품에 이르러서 이야기는 죽음 자체로 마무리됩니다. 리얼리티가 살아난 것이지요. 그는 소설에서 현실주의자의 낭만적 꿈을 형상화하고 당대인의 원망과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교수가 석주의 문학과 만난 것은 20여년 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지도교수의 권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의 문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들게 돼, 박사학위 논문도 석주 문학과 그 시대를 주제로 삼으려 했으나 잠시 밀쳐둘 수밖에 없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은사의 충고 때문이었다. 논문 작성 후 다시 석주에 몰두하기 시작해 이제야 본격적인 연구서를 내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적으로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대만에 교환교수로 초빙돼 간 것이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때의 시간여유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작업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연구자로서의 한 시기를 정리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행복했던 시간

15~16년간 쓴 논고를 모았지만 전체 작업과정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다. 시작품론, 소설작품론, 작가론 및 문학론, 총론의 순서로 집필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부분에서 종합으로, 미시에서 거시적 시야로 확산·심화돼 온 것이다. 뒤늦게야 깨달은 사실이었다.

"하루 16시간 이상의 강행군이었지요. 〈주생전〉 논문을 쓰던 어느날 밤, 꿈에 석주가 나타나 책을 건네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플 땐 강화도에 있는 그의 초당터로 달려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소장 연구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정교수는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쳐왔다. 한시의 언어미학을 분석한 《한시미학 산책》(솔), 명청대의 청언소품(淸言小品)을 모아 평설한 《마음을 비우는 지혜》(솔), 한국 애정한시 평설집인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교학사), 선인들의 산수유기(山水遊記)를 집대성한 자료집 《한국 역대 산수유기취편》(민창문화사) 등이 그 저술목록이다.

"사실 학계에서는 대중 교양서 출간을 그리 달가와하지 않습니다. 논문만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풍토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수의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지식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식은 공유될 때 더욱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기도 하지요."

정교수에게 전철간은 움직이는 소작업실이다. 출퇴근길의 전철간에서 틈틈이 짤막한 산문을 번역하고 감상을 단다. 분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컴퓨터로 입력해 정리해둔다. 이렇게 모은 것이 어느새 책 두권으로 묶어낼 양이 됐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찬찬히 되씹으며 가다듬을 생각이다.

이제 정교수는 다시 출발점에 섰다. 이 책을 계기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향해 장도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선현들의 글쓰기 이론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고전문장 이론 자료를 수집, 번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봄에 펴낼 《비슷한 것은 가짜다 — 연암 박지원의 산문미학과 예술론》은 그 첫번째 성과물이 될 것이다.

— 박천홍 기자